

 환경부	보 도 자 료		보도시점	자료배포일	매수
			'07. 10.11일(목) 조간 ※ 보도시 출처표기	'07.10.10	3
	담당 부서	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	이상팔 과장 / 김홍주 사무관 02-2110-6761, khjlss@me.go.kr		

국가생물주권 조기 확립으로 생물자원 강국 도약

- 국립생물관 개관에 즈음하여 국가생물주권 비전 선포식 개최 -

◇ 2020년까지 우리 땅의 모든 생물종을 밝혀 국가생물주권 확립

◇ 남·북이 함께 협력해 『한반도 생태공동체』 구축

□ 오늘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 국립생물자원관(관장 박종욱)에서 국가생물주권비전선포식이 개최되었다. 이 자리에서 ‘국가생물주권을 조기에 확립하고, 생물자원의 다양한 혜택을 후손들이 향유할 수 있는 생물자원 강국으로 도약하겠다.’는 국가생물주권 비전이 선포되었다.

□ 아울러 국가생물주권 비전을 이행할 4대 실천사항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고, ‘우리 아들딸들에게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주자’고 밝혔다.

○ 첫 번째 : 2020년까지 우리 땅에 사는 모든 생물종을 조사해 발굴

◆ 자생 생물종 조사·발굴에 박차를 가하여 2014년까지 3만 종을 더 밝혀 내고, 2020년까지 그 나머지를 찾아내겠다

※ 한반도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총 10만 종 중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30%에 불과

◆ 2020년까지 한반도 내 모든 생물종 조사·발굴

- 두 번째 : 생태계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
 - ◆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많은 생태계 변화와 아열대 동·식물이 나타나는 등 기후변화도 심각한 수준으로 생태계 변화가 진행
 - ◆ 서식지 보호 및 멸종위기 야생동·식물의 체계적인 보전을 통한 생태계 건강성 회복 추진
 - ◆ 외래종 유입과 위해성 평가 등을 위한 외래종관리법 제정

- 세 번째 : 남북이 함께 협력해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축
 - ◆ 우리 국토의 근간인 3대 핵심 생태축을 보전하여 한반도 생태공동체 건설
 - ◆ 한반도 골격인 백두대간 보전 및 복원
 - ◆ 비무장지대를 평화공원 등으로 지정, 후손에게 자연유산으로 인계
 - ◆ 생명의 땅 갯벌과 습지를 지닌 도서·연안 생태축도 잘 보전
 - ◆ 용산기지 공원화가 좋은 모범인 도시공원 조성 등으로 생태축 연결
 - ◆ 위의 것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연생태복원법 제정
 - ◆ 국토의 11%수준인 자연환경보호지역을 2015년까지 OECD 국가 평균인 15%로 확대
 - ◆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남북관계를 토대로 한반도 생태계 복원 추진

○ 네 번째 :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기반 확충과 우수 인재의 양성

◆ 서천 국립생태원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12년에 개관하고, 6개 권역별로 각 지역의 생태계와 생물자원을 관리할 지역생물자원관 건립

◆ 이들 기관들은 전문인력 양성과 사회진출 확대, 아울러 생물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

○ 맺음말 : 후손들에게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줌

◆ 생물주권 확보는 우리 후손들을 위한 값진 투자

◆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보아 ‘우리 아들딸들에게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’을 물려줄 수 있도록 오늘의 약속을 실천

□ 환경부(장관 이규용)는 국가생물주권비전 선언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
〈 참고 자료 〉

붙임 : 1. 국가생물주권비전선언의 배경과 의의

2. 참여정부 생물보전정책 성과보고

※ 붙임 2는 웹하드(폴더명 : 생물주권)에 게재

국가생물주권비전선언의 배경과 의의

1. 국가생물주권비전 선언 배경

□ 확고한 기반 구축

-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국가생물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기반은 매우 취약했으나, 지난 참여정부 5년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, 이를 바탕으로 확고한 기반 구축
 - ‘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(’03)’, ‘야생동·식물보호법(’04)’, ‘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(’06)’ 제정 등 우리 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법령과 관련 제도 정비
 - ‘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(’05.1)’, ‘야생동·식물보호 기본계획(’05.1)’, ‘멸종위기 야생동·식물 증식·복원 종합계획(’06.6)’ 등 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·추진
 - ‘국가 장기생태 연구(’03)’, ‘자생 생물종 조사·발굴(’06)’, ‘한국 생물지 발간(’06)’, ‘해외 생물자원 조사(’07)’ 등 생물자원 조사·발굴 본격 추진
 -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(’04)’, 월악산 산양 복원(’06)’ 등 대형 포유류와 멸종위기 식물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 복원 본격 추진
 - 멸종위기 야생동·식물의 안정적인 증식과 종보전 기능을 담당하고, 복원사업을 지원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 8개소 추가 지정(’07.10월 현재 총 13개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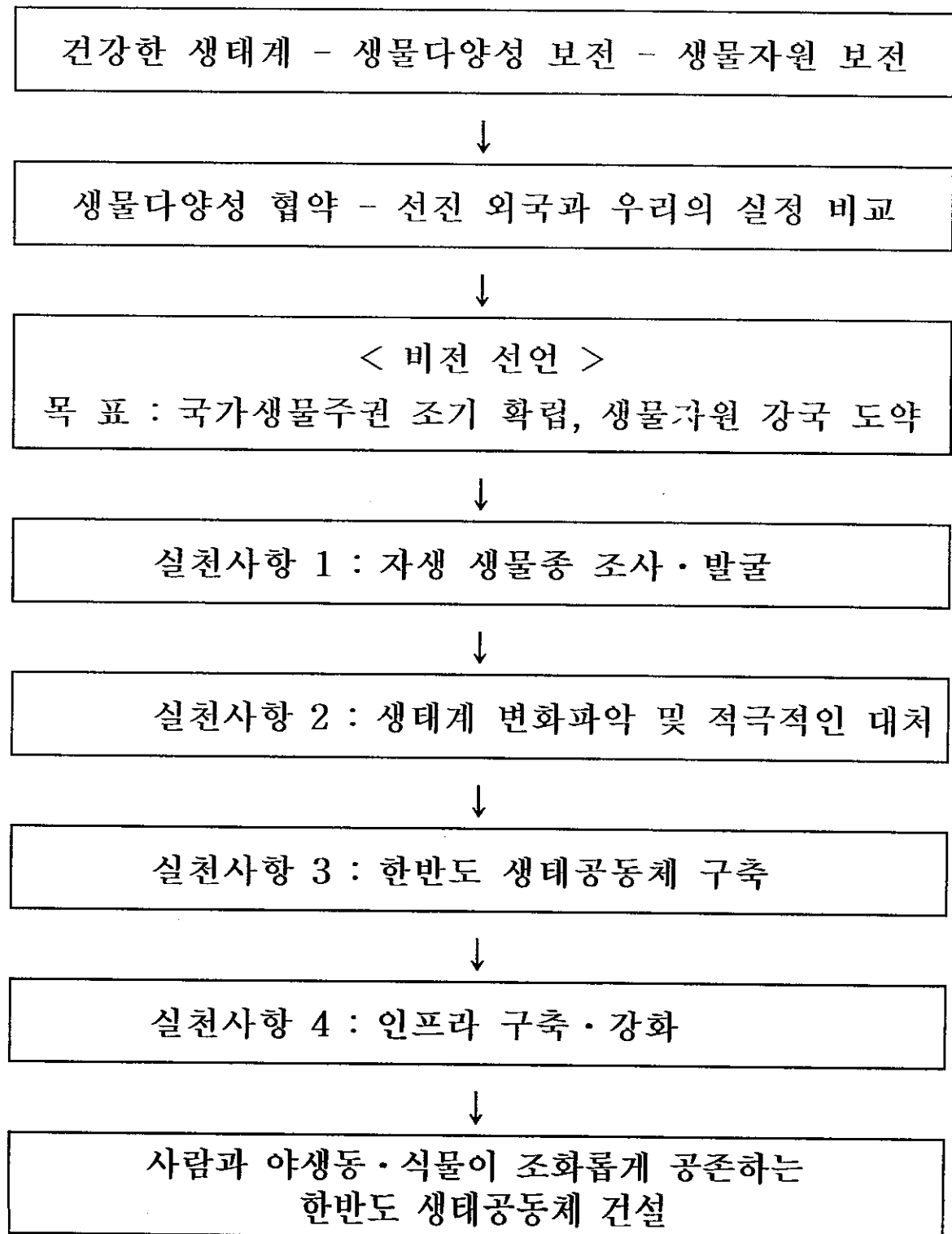
- '04년부터 각 시·도에 야생동물 구조·관리센터를 건립하여 야생동물과의 조화로운 공존 도모
- 국토 11.2%의 자연환경보호지역 확보
- 좁은 국토에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자연환경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인식을 바탕으로 한 여건 성숙
 - 국토의 자연환경보전 가치를 평가한 생태·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제작('05)하여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활용하여 우수 생태계 보전기반 확립
 - 갯벌을 매립하여 공단을 조성하려던 당초 계획이 정부와 지자체, 지역 주민간 합의로써 서천 국립생태원 건립으로 변경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 발현
- 국립생물자원관 개관('07.10)을 통해 우리 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조사·연구·관리체계 구비

□ 비전 제시 및 실천의지 천명

- 국가생물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한 현 시점에서 **비전과 실천사항을 제시하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실천의지 천명 필요**
- 국가생물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되고, **현재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투자확대 등 제반 지원이 강화되어야 되므로 비전선언 필요**

2. 선언문 구성과 해설

□ 구조도



□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과 가치

- 생물다양성은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종의 다양성과 함께 각 종이 지니고 있는 유전적 다양성,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의 다양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임
- 생물다양성은 다양한 종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존속될 때 유지·증진될 수 있으며, 종간의 조화와 균형이 상실되면 먹이사슬의 단절과 파괴를 초래함
- 생태계 내 특정 종의 심각한 변화나 멸종은 다른 종에 영향을 끼치고, 이로써 연쇄적인 변화를 야기하여 전체 생태계의 건강성을 저해할 수 있음
- 따라서 건강한 생태계 속에서 생물다양성이 보전되어야만 우리 땅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종이 보전되고, 이들 종이 생물자원으로써 가치창조의 원천이 될 수 있음

□ 1992년 생물다양성 협약의 의미

- 1987년 유엔환경계획이 지구상 생물종 보호를 위한 전문가 논의를 시작한 이후, 1992년 6월 리우환경회의에서 158개국 대표가 체결하였음
- 이 협약에서의 생물종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과 이 생물종들이 서식하는 생태계, 생물이 지닌 유전자까지 포함함
- 동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문에서 나타난 다음의 세 가지임
 - 생물다양성의 보전이 인류의 공통적인 관심사임을 확인하고, 각 국가는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하며,

- 또한 각 국가는 자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책임이 있음과 동시에 그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하였음
- 동 협약은 ‘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은 식량, 건강 및 그 밖의 점증하는 세계 인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지극히 중요’하므로 ‘궁극적으로 국가간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, 나아가 인류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주목’하고 있음

□ 생물주권과 국내·외 동향

- 생물종이 자원으로 활용되어 새로운 가치가 생성될 때, 그 종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생물주권은 무한한 가치창조의 가능성과 연계되어 국익과 결부될 수 있음
- 그리고 생물주권은 국제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자국 생물종 목록을 통해 자국에 서식하는 생물종임을 규명할 수 있을 때 가능함
- 외국의 경우 18세기 중반부터 생물종에 대한 조사·연구, 표본의 수집·관리가 이루어졌고, 자국 생물종은 물론 외국의 생물종 조사·연구에 주력해왔음
- 반면, 우리나라는 100년 전 독일로 건너가 최고급 크리스마스 트리로 개량된 구상나무나 미국으로 유출된 정향나무가 미스키파일락으로 불리는 조경수로 역수입되는 것과 같이 생물주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음
- 이런 실정에서 국립생물자원관 건립을 계기로 늦게나마 국가생물주권비전을 선언하여 선진국으로 나아가고자

하는 것이며,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 표명과 실천의지 천명에 큰 의미가 있음

□ 국가생물주권비전 선언과 목표

- ‘국가생물주권을 조기에 확립’하고, ‘생물자원 강국으로 도약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,
- 이런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사항을 통해 앞으로의 정책을 밝히고자 하는 것임
- 생태계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 선후관계를 설정하거나 우선순위를 구분할 수 없으나, 우리의 실정을 염두에 두고 실천사항의 순서를 정하였음

□ 첫째, 2020년까지 국내 모든 생물종 발굴

- 한반도는 비슷한 면적의 섬나라인 영국보다 생물다양성이 높다고 평가되나, 아직 한반도에 서식하는 생물종 규모에 대한 것이 연구된 바 없음
- 통설로써 10만 종으로 추정되나, 학자들에 따라 6만 5천 종, 7만 종, 10만 종, 20만 종 등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실정임
- 그 동안 문헌상으로 확인된 한반도 생물종은 29,916종이고, 10개년 ‘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(’05.1)’의 2014년까지 조사·발굴 목표가 총 6만 종임
- 생물주권은 자국 생물종 규명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국내 서식종의 발굴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여 2020년까지 국내 서식 생물종을 모두 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

- 우리나라 생물학계의 현 인프라 수준으로는 어려운 목표가 될 수 있으나,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으로 이 목표달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임

□ 들췌, 생태계 변화파악 및 적극적인 대처

- 생태계는 각종 개발과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서식지 감소와 훼손, 먹이사슬 파괴로 인한 균형 상실, 과도한 채취와 포획, 기후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되고 있음
- 또한 동·식물 서식한계선의 현저한 변화, 아열대 동·식물도 출현하는 등 기후변화 징후도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변화하는 생태계를 상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함
 - 영월지방에서 관찰되던 북방계 곤충인 상제나비는 이제 거의 관찰되지 않는데, 북한이나 연해주 지방에서는 흔한 종인 점에서 남방한계선의 상승으로 남한에서는 서식할 수 없다는 학설이 제기되고 있음
 - 또한 대구 사과란 말이 없어졌듯이 감이나 포도 등의 작물 재배 적지도 큰 변화가 있음
- 산림 내 상위 포식자인 호랑이, 표범, 시라소니 등의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이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하면서 이제 고라니나 멧돼지의 상위 포식자가 없는 실정임
- 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한 생물상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 현지내 보전(In-site Conservation)과 현지외 보전(Ex-site Conservation), 두 가지가 있음

- 종의 보전이나 멸종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지내 보전(In-site Conservation)을 도모하여야 함
 - 위협요인을 해소해 주고, 안정적인 서식여건을 조성하여 종 스스로 존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
 - 반면 서식권 내 개체군이 작아 자생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한 복원이 필요하며, 지리산의 반달가슴곰 복원과 월악산 산양 복원이 이에 해당함
- 호랑이와 같은 종은 광활한 생활권을 요구하는 종으로 현재의 자연상태에서 복원은 불가능하므로 현지의 보전(Ex-site Conservation)을 통해 종보전을 해야 함
 - 현지의 보전을 담당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적정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, 멸종위기 야생동·식물을 체계적으로 증식·보전하는 기관이며, 동·식물원과 연구기관 등이 해당됨
 - 현재 서울대공원, 한택식물원, 한국황새보전센터, 홀로세 생태보존연구소, 남부내수면연구소 등 13개 서식지외보전 기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·식물 65종을 증식하며, 종보전을 겸하고 있음
 - 서식지외 보전방법은 종 자체뿐만 아니라 향후 생물자원으로써의 활용을 위해 종자 및 유전자 등도 보전해야 하며, 그 기능을 국립생물자원관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총괄 담당하게 됨

- 태풍이나 황사와 같은 자연적인 요인과 함께 무역과 관광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외래종이 우리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도 있음
 - FTA 체결 이후 유전자 변형생물의 국내 유입 등 농산물 수입량 증가에 따라 외래종의 유입 증가 예상
 -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외래종은 현재 894종(식물 287종, 동물 607종)이며, 일부종에 의한 생태계 교란 발생
- 국내 도입된 외래종의 환경영향 및 도입예정 외래종의 환경위해성 평가 체계가 부재했으며, 외국종에 대한 정보량 부족 및 검역 위주의 통제로 외래종 유입에 대한 사전예방 체제가 미흡했음. 또한, 외래종 관리업무가 환경부, 농림부, 해양수산부, 산림청, 관세청 등으로 분산
- 국내에 도입된 외래종의 유입과 위해성을 체계적·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진국과 같이 외래종관리법을 제정해야 함
- 자연생태계와 관련된 외래종 관리는 야생동·식물보호법에 따라 환경부가 총괄·관리하고, 복지부 등 타 부처에서는 생태계 위해성 차단이 아니라 위생검역 등을 목적으로 함
 - 국가외래종관리위원회 설립을 통해 관계 부처간 유기적인 평가·관리방안 모색 및 수입 감시체계 구축
 - 외래 생물종 관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
 - 생태계교란 외래 생물종 취급에 관한 규제, 생태계교란 외래 생물종의 방제, 미평가 외래 생물종의 평가 및 관리

□ 세계, 남북이 함께 협력해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축

-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각각의 단위 서식지가 고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, 서로 연계되어 축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
 - 도로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고립된 서식권은 식물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어 생물상 변화를 야기하게 됨
 - 따라서 고립되거나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·복원하는 것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보전하는데 매우 중요함
- 우리 국토의 근간은 ‘백두대간’, ‘비무장지대와 민통선’, ‘도시·연안’의 3대 핵심 생태축임
 - ‘백두대간’은 한반도의 골격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생태축이지만 도로 등으로 많이 단절되어 있어 연결·복원이 필요함
 - 생태계 보고인 ‘비무장지대’는 현 상태로 보전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
 - ‘도시·연안’은 그 동안의 대형 갯벌의 매립에도 불구하고, 철새들을 포함하여 많은 생물종을 수용할 수 있는 갯벌과 습지가 많아 매우 중요한 생태축으로 보전되어야 함
- 이 3대 핵심 생태축 보전은 우리 생태계 보전의 근간이 되며 가장 중요한 과제임
-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가 최근 도시지역에 생태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당위성을 인식하고, 실행하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임

- 용산기지 공원을 통해 북한산-인왕산-남산-용산-한강-관악산으로 이어지는 생태축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모범 사례임
- 크고 작은 생태지역이 서로 연계되어 광역생태축을 형성하고, 광역생태축이 3대 핵심 생태축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
- 또한 자연공원 등과 함께 소규모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·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, 현재 11.2% 수준을 연차적으로 2015년까지 15%로 높여야 함
- 반면 현재의 생태통로 조성이나 생태복원은 사업목적에 필요한 생태적인 조사·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
- 이를 위해 멸종위기종 복원, 생태공원 조성, 생태축 연결, 생태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자연생태복원법이 제정되어야 함
- 생물종의 행동권과 생육권은 국경과 무관하며, 한반도 생물상은 일본과는 많이 다른 반면, 중국 동북부와 연해주와는 동일 서식권이라 매우 긴밀한 국제협력이 필요함
 - 특히 포유류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종이 같은 종이므로 멸종위기종 복원추진 등에 인접 국가간 협력이 필요함
 - 또한 철새들의 중요한 보금자리인 우리나라 도서·연안과 내륙 습지 등도 유기적인 국제협력을 필요로 함

- 아울러 해외생물자원에 대한 공동 조사·연구를 강화해야 하나, 동북·동남아 국가들은 영국이나 미국, 일본 등에 의해 오래 전에 선점되었음. 몽골, 캄보디아, 라오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해외생물자원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

□ 네째, 인프라 구축 강화

- 끝으로 생물자원 연구기반 확충 및 우수 인재 양성이 필요함
- 선진국들은 18, 19세기 중반부터 자원관을 건립하여 자국은 물론 세계의 생물종을 수집·수장하고 연구해왔으나, 우리는 이제 국립생물자원관을 개관하는 실정임
- 갯벌을 매립하여 공단을 조성하는 대신 생태·연구·관광 도시 건설로 전환한 서천은 그 자체로도 환경사적 의미가 있으며, 특히 300여 명의 생물학계 전문인력 수요를 창출한 국립생태원은 당초 계획대로 2012년에 건립되어야 함
- 또한 각 지역의 생태계와 생물자원을 관리할 특화된 지역 생물자원관 건립 역시 많은 연구인력을 필요로 하게 됨
- 이와 같은 연구기관 설립지원이 우리 생태계 관리와 보전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, 이를 바탕으로 생물자원 확보와 관리, 확보된 생물자원을 생물산업의 원천소재로 제공하는 순환 매커니즘의 중추가 됨
- 전국 75개 대학에 생물학부가 있어 매년 3천 여명의 생물학도가 배출되나, 분류나 생태 분야에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함

- 기초과학의 취약성과 함께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 전공과 다른 분야에 취업하는 반면, BT나 유전자공학 등의 응용분야에 편중되고 있음
 - 국립생물자원관 개관과정에서 척추동물 등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열악한 인프라를 대변하는 것임
 - 2012년에 개관하는 국립생태원은 생물학도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것이며, 지역 생물자원관 건립지원도 앞으로 꼭 실천해야 할 중요한 정책임
 - 이런 인프라 위에서 ‘의약품의 75%가 생물종에서 비롯되었다’는 것과 같이 다양한 생물산업의 원천소재 제공이 가능하며, 이를 통해 생물산업 진흥과 국익 창출이 가능함
- 맺음말, 후손들에게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물려주자
-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우리 삶의 터전인 생태계 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실천이 필요한 시점임
 -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생물종과 접하며 교감할 수 있을 때 건강한 생태계라 할 수 있고, 그 속에서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음
 - 조상들의 자연친화적인 삶의 지혜, 못 생명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배워 실천해야 하며, 오늘 이 선언을 성실하게 실천함으로써 국가생물주권을 조속히 확립하고, 생물자원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함

3. 의 의

- 생물자원 보전을 국가적 아젠다로 전환
- 인적자원 양성 등 생물학계 발전의 전기 마련
- 비전목표 조기달성을 위한 확고한 기반 구축